



박준영 대선 출마 선언한다

15일 전남대 특강서 ... '호남 주자' 대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

전남지사직 사퇴 여부는 9월에 결정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달 중순께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월 대선에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출신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 지사의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야권의 대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박준영 전남지사 측근에 따르면 박 지사는 오는 15일 6·15 남북 정상회담 12주년을 맞아 전남대에서 특강을 갖고 정국 현안 및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지사가 이날 특강에서 6·15 정상회담의 의미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남 정치권의 현실 등을 주제로 자신의 대선 출

마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힐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박 지사가 6·15 전남대 특강을 통해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대학생들과 질의 및 응답 과정에서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힐 수도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정권을 창출, 남북 화해의 근간을 세운 '김대중 정신'을 토대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사는 당선 가능성을 떠나, 과감한 정치적 도전을 통해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호남 주자 불가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박 지사의 도전이 현실화된다면 대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야권의 대선 후보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보이지 않는 데다 박 지사가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 등 요직을 지냈다는 점에서 '김대중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의미 있는 지지율만 확보한다면 야권의 대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남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타 지역 대선 주자들과의 연대 등에 나설 수 있는 데다 컷-오프 등을 통과한다면 '누사람 효과'로 지지세가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야권의 대선 주자군에 포함되지 않아 대중적 지지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찾잔 속에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박 지사의 '선비형 리더십'으로는 다양하고 다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역동적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지사 측에서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지사직 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박 지사 측에서는 6월중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전남도민의 여론을 수렴한 이후, 9월중에 지사직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 등의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명분으로 곧바로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박 지사 측 관계자는 "6월 대선 출마 선언은 확정적이나 지사직 사퇴 문제는 아직 정해져 바 없다"며 "지사직 사퇴 문제는 전남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단체장협의회 출범·서민복지정책 협약식

민주당,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 결의

민주당은 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출범 및 서민복지정책 협약식'을 연다.

이번 협약식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서민복지정책을 실현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용섭 정책위의장,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광역단체 9명, 기초단체 95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인사말·제안 설명·임원진 선출·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의 민주당에 대한 정책 제안,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민생복지 실현을 위한 협약 서명식도 함께 진

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서민복지정책 실현을 약속하고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 운영을 결의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민주당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강운태 시장·안희정 지사 교차 특강

오늘 충남도청·광주시청서 공무원 대상

강운태 광주시장과 안희정 충남도지사 4일 각각 충남도청과 광주시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시간 여 동안 교차 특강을 한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청 공무원을 상대로 '광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안 지사도 이날 같은 시간 광주시

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지방정부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안 지사는 특강에 앞서 광주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강 시장과 안 지사는 특강 후 이날 광주와 충남의 중간 지점인 전북 전주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강운태 시장 안희정 지사

강 시장의 시·도지사 교차특강은 송영길 인천시장, 김법일 대구시장, 김두관 경남지사에 이어 네번째다. 안 지사의 교차특강은 대전·경기·인천·충북에 이어 광주가 다섯 번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법관 후보에 광주·전남 출신 3명

고영환·유남석·윤진수 등 13명 추천

담양 출신 고영환(57·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목포 출신 유남석(55·13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광주 출신 윤진수(57·9기) 서울 대법학과 교수 등 광주·전남 출신 3명을 포함 13명이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오는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 등 4명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는 고 차장과 유 법원장 외에 강영호(55·12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병화(57·15기) 인천지방법

원장, 김홍일(56·15기) 부산고등검찰청장, 서기석(59·11기) 수원지방법원장, 안창호(55·14기) 서울고등검찰청장, 조병현(57·11기) 서울행정법원장, 최성준(55·13기) 춘천지방법원장 등이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1명도 없으며, 장애인으로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판사가 된 김 울산지

방법원장이 포함됐다. 검찰 간부 중 1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 인천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윤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그 역시 지방법원 원장관사를 지냈다.



고영환 후보 유남석 후보 윤진수 후보

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번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1명도 없으며, 장애인으로는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판사가 된 김 울산지

방법원장이 포함됐다. 검찰 간부 중 1명을 대법관으로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 인천지검장 등 검사 3명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윤 교수가 유일하게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그 역시 지방법원 원장관사를 지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 18대 법사위 소속 의원과 울산 출신 19대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BBK 검사 등 국민 뜻에 맞지 않다"

민주, 재추천 요구

민주당 18대 법사위 소속 의원과 울산 출신 19대 의원들은 3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지난 1일 선정한

13명의 후보는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만큼 대법관 후보의 재추천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이 모여 단 두 시간 만에 13명의 후보자를 가려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기수별·지역별·학교별 안배만 했을 뿐 성별·가치관 안배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여성 후보자도 없을 뿐 아니라 후보자 대부분은 수구보수로 평가되고 어떤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고교 후배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김홍일 부산고검장을 겨냥, "이명박 대통령에게 BBK 사건 면죄부를 줬던 수사 책임자가 검찰 내부 영전을 거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며 "BBK 국정조사 등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후보 추천 단계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회견문에는 18대 국회 법사위 소속 이던 박영선, 박지원, 유은근, 이춘석 의원과 19대 국회 법조계 출신인 문병호, 문재인, 송호창, 이인주, 이종걸, 최재천, 추미애 의원 등 총 20여명이 서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종두

세월이나 빨리 가는 수 밖에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KOICA는 1991년 설립되어 우리정부의 무상원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도국에 총 80여개의 병원 및 보건소, 170여개의 학교, 40여개의 직업훈련원을 짓고, 농어촌개발, 전자정부, 발전소 건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대한민국, KOICA가 함께합니다.

잊지 않게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준 당신의 사랑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KOICA는 과거에 우리나라를 지원해 준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FK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 개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World Friends Korea 한국해외봉사단" 모집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외봉사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해외봉사단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일시 2012. 06. 07(목) / 15:00 - 16:30
 장소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산학연구관 1층 합동강의실
 문의 www.koica.go.kr / 1588-0434(한국해외봉사단 모집상담센터)
 주최 KOICA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활동수기집 **서른, 꿈 그리고 아프리카**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